국제기구 역할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를 중심으로*

김 판옥
제명대학교

요 약

최근 미국패권 주도의 일방주의적 국제질서는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논쟁을 재생산하고 있다. 신현실주의의 계통이론들은 국제기구의 독립적 역할을 미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단지 강대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적 의미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면 신자유주의 계통이론은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기능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국제기구의 형성과 역할을 설명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행사한 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의 국제기구이론들은 국제기구의 형성과 역할에 대해 매우 대치되는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제정리학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연구자료로 채택하여 이 기구들의 형성요인과 수행한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상반된 주장에 기기하는 기존 이론들 추장의 적성을 평가한다.

주제어: 미국패권, 국제기구이론, 국제정리학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1. 서 론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정리학계에서는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하락과 더불어 미국패권의 쇠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폴 케니디(Paul Kennedy) 등과 같은 쇠퇴론자들은 미국 패권이 쇠퇴하기 시작했음을 명확히 했으며 이와 비슷하게 로버트 코헨(Robert Keohane)과 같은 신자유주의자들도 미국의 상대적 약화를 인정하며 미국의 패권이 쇠퇴한 이후의 국제정리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였다(Kennedy 1987; Keohane 1984). 반면 조셉 나이(Joseph Nye), 수잔 스트레인지(Susan Strange) 등과 같은 학자들은 미국의 연성국력 등을 배경으로 미국의 패권적 위치는 건전함을 주장했다(Nye 1990;...)

* 논문의 여러 취약한 부분에 대해 좋은 지적과 조언을 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Strange 1987). 1)

이러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 초 소련 등 사회주의국이 붕괴되어 상황에서 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경제력이 회복되고 상대적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보일던 일본과 독일이 경제침체를 맞으며 미국패권의 쇠퇴에 대한 논의는 좀처럼 찾기 힘들어졌다. 즉 미국은 80년대의 쇠퇴 논쟁을 뒤로하고 현재는 로마제국과 같이 막강한 패권적 힘을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욱 확립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주도의 국제질서의 환경은 국제정치의 또 다른 분야인 국제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해석은 논쟁을 재생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제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주장을 일정 부분 미국패권의 약화를 전제하고 제기하였다. 즉 신자유주의자들의 따름에 미국의 패권이 쇠퇴한 이후에도 국제기구가 일정 부분 패권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정치의 독립적인 주요 행위체가 되어 국제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국제기구의 독립적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자의 주장은 EU, NAFTA, WTO가 형성되고 UN의 역할과 NATO가 확장되는 등 미국이 다자적 통 속에서 국제관계를 운영하는 시기에는 그 이론적 전망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패권적 협에 기초한 일방주의적(unilateral) 정책에 근거하여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하면서 국제기구의 독립적 역할에 대한 주장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국제기구의 형성과 역할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들인 패권정이론, 기능주의이론, 그리고 게임이론 등이 국제기구의 형성 요인과 역할의 독립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가간 협의의 분배 상황을 국제정치의 결정 요인으로 간주하는 신 현실주의(neorealism) 계통 이론들은 국제기구의 독립적 역할을 미<void influence the value of this world>으로 인식하고 단지 강대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적 의미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다(Grieco 1988; Waltz 1979, 1993; Measheimer 1994/95). 따라서 신 현실주의의 이론적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패권정이론(the theory of hegemonic stability)은 국제기구의 형성과 역할은 패권국의 협과 이해관계에 직접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제기구의 독립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Krasner 1982).

반면 신자유주의의 이론은(neoliberalism)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기능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국제기구의 형성과 역할을 설명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 국제기구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된다고 한다.

1) 본 연구의 미국의 쇠퇴 여부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있었던 논쟁을 소개하는 것이지 현 미국패권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